

해외 주요 국가별 시멘트산업 동향



중국

2015년 중국 상위 10개 시멘트사 생산비중 35%로 증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가 공개한 건축 자재 산업에 대한 12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의 상위 10개 시멘트 회사들의 자국 내 생산비중이 2010년에는 25%였으나 2015년에는 3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산화질소 방출은 10%, 이산화황 방출은 8% 각각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장관이 밝혔다.

산업정보기술부 장관은 “시멘트 산업의 부가가치는 2011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 전제한 뒤 “시멘트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질수록 이산화탄소 방출량도 줄어들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중국시멘트 시장의 수요는 앞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고정 자산 투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기술 및 소비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매년 3~4%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22억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건재연합, 시멘트 합작 투자회사 설립

중국의 국영 시멘트 생산업체인 중국 중국건재연합(china national building materials)이 100억위안을 투자해 시멘트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중국건재연합은 이를 통해 합작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중국 내 3개 회사가 소유

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건설연합은 합작 회사인 사우스 웨스트 시멘트(주)에 30억 위안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20억 위안은 2년 후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국건설연합 관계자는 이러한 투자가 중국 남서지역에서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중국의 시멘트 및 클링커 수출 감소세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까지 중국의 시멘트 및 클링커 수출은 총 9Mt으로 전년동기대비 3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중국의 시멘트 및 클링커 수출은 5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8% 하락하였다.

콘치 시멘트사, 탕산 지동 시멘트사 주식 매입

중국 최대 건설장비 업체인 안후이 콘치 시멘트사가 탕산 지동 시멘트사의 주식 607만 주를 매입했다고 허베이성 소재 탕산 지동 시멘트사가 발표했다. 안후이 콘치 시멘트사는 이에 따라 탕산 지동 시멘트사의 주식 15.05%를 보유하게 되었다.

신장 텐산 시멘트, 자금 조달 위해 공모채 발행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소재한 신장 텐산 시멘트사가 6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 공개 형태로 28억위안(미화 4억4,340만달러)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1주당 30.64위안의 가격으로 최대 1억2,000만주의 주식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주식 공개를 통해 확보된 자금의 일부인 24억8,000만위안은 신장에 시멘트 생산 라인 5개 및 분쇄 시설 1개를 건립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대만

대만 상위 2개 시멘트업체 실적 증가

대만 제1의 시멘트 생산업체인 대만 시멘트사의 2011년 11월 실적은 전월대비 9.92% 하락한 56억8,000만NT달러(미화 1억8,933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만 제2의 시멘트 생산업체인 아시아 시멘트사는 2.1% 증가한 9억5,200만NT달러(미화 3,173만달러)를 기록했다.

대만 시멘트사의 2011년 1~11월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3.45% 급증한 590억1,400만 NT달러(미화 10억9,7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아시아 시멘트사는 같은 기간 13.28% 증가한 98억6,200만NT달러(미화 3억2,873만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대만에서는 현재 대중 고속 수송 시스템 시공, 우쿠 양메이 구간 확장 계획, 타이베이와 타오위안 국제 공항 사이의 고속 수송 시스템 등과 같은 대형 공공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대만의 시멘트 시장 수요는 2~3% 증가한 12.5~13Mt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인도 시멘트 생산 및 출하 소폭 증가

인도 시멘트 제조업체 연합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월 인도의 시멘트 생산은 14.08Mt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2%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시멘트 출하량은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하여 13.98Mt에 도달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5% 감소했다.

4월에 시작된 현 회계 연도에서 인도의 시멘트 생산은 지난해 108.67Mt에서 112.80Mt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11년 4월에서 11월까지의 출하량도 107.76Mt에서 111.92Mt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ACC사, 주정부와 합작투자로 석탄단지 개발

인도의 ACC사가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정부와 합작 투자를 통해 석탄 단지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는 생산 비용 중 25~30%를 차지하는 연료인 석탄 가격 상승으로 시멘트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주 에너지원인 석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생물 폐기물 및 산업 폐기물 등과 같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수요 증가로 시멘트공장 설비 투자 확대

인도네시아에서의 시멘트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시멘트 업체를 선도하는 기업인 PT 세멘 그레시크가 새로운 공장 2개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인 PT 세멘 그레시크 관계자는 “내년에 시멘트 공장 2개를 건설할 예정이며 대략 미화 6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며 “중부 자바 및 수마트라에 2.5Mta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한 개씩 건설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 회사는 총 5Mta의 생산 능력을 갖춘 2개의 신공장을 올해 온라인화시켰다. 2009년에 공사가 시작된 Tuban IV가 2012년 1월에 본격 가동을 시작했고, 남부 술라웨시의 Tonasa IV는 5월에 가동될 예정이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2개의 신공장이 완공될 경우 2015년에 세멘 그레시크의 시멘트 생산량은 10Mt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세멘 크레시크는 파푸아의 소롱에 10,000tpa를 포장할 수 있는 포장 공장을 내년 4월경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의 최대 국영 투자 금융 회사인 국가 개발 투자 공사(SDIC)는 인도네시아 서부 파푸아의 마노과리에 1Mta의 생산 능력을 갖춘 시멘트 공장 건립계획을 세웠다. 현재 시멘트공장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투자 금액은 2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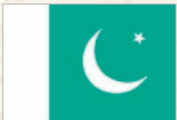
한편 중국의 안후이 콘치도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NDRC)로부터 인도네시아에 1.55Mta의 생산 능력을 갖춘 시멘트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시멘트 수요, 두 자릿수 상승

2011년 인도네시아의 시멘트 판매가 부동산 건축 호조에 힘입어 17% 성장하였다고 인도네시아 시멘트 협회가 밝혔다. 2011년 인도네시아의 시멘트 판매는 47.5Mt으로 판매의 절반 이상이 자바섬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시멘트 협회의 우립 트리무료노(Urip Trimuryono) 회장은 “인도네시아 시멘트 업계는 강력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시멘트 협회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소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올해 시멘트 판매는 전년대비 6% 성장에 그칠 것이라 예측했다.



파키스탄

시멘트산업 연 평균 수요 3.2% 성장 전망

파키스탄의 주요 시멘트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가 2012년에는 31.5Mt, 2013년에는 32.5Mt, 그리고 2014년에는 33.5Mt을 생산 및 출하하여 연간 평균 성장률이 3.1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공공 부문 개발 프로그램(PSDP) 활용 증가, 자체 생산을 위해 인도에게 부여된 MFN(최혜국) 지위, 국내 시멘트 가격 상승, 국제 석탄 가격 하락 및 거대 댐 시공 등 중장기적인 호재가 많기 때문이다.

카라치 소재 증권 회사인 InvestCap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시멘트 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가까운 장래에는 지방 및 해외에서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인접국인 아프가니스탄과 인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시멘트 수요 큰 폭 증가 전망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멘트 수요가 2012년에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주로 정부 프로젝트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최근 CNB 캐피탈이 말했다. 그러나 Aramco와 진행 중인 연료공급 문제로 인하여 2012년에 예정된 4.5Mta의 신규 시멘트 생산이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CB 캐피탈 관계자는 “연료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 강력한 가격 결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신규 3Mta 라인이 2012년 1분기에 상업적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부 시멘트사의 공급 제약 가능성과 결부되어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부 지역에서의 연료 공급부족 현상이 더욱 극심할 것”이라 밝혔다.



베트남

컨터 광물 및 시멘트사, 수출 계약 체결

베트남 시멘트 생산업체인 컨터(Can Tho) 광물 및 시멘트사가 중국 협력업체와 2만 4,000톤을 캄보디아에 납품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베트남 신문은 컨터의 회장이자 CEO인 타이 민 투이엣(Thai Minh Thuyet)의 말을 인용해 국내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라파즈, 우즈베키스탄에 신공장 건립

우즈베키스탄에서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연합되어 있는 우즈벡 건축자재 주식 합자 회사의 총무국장인 아크바 무히티디노프(Arkba Mukhidinov)가 2012년 하반기에 라파즈가 지각 지역에 2Mta의 생산 능력을 갖춘 시멘트 공장 건설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히티디노프는 “프랑스 회사가 5월 말경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며 “2012년 중반까지 타당성 조사작업을 마치고 여름부터 택지 조성을 시작해 시멘트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JK 시멘트, 아랍에미리트에 백색 시멘트 공장 건설

인도의 JK 시멘트사가 아랍에미리트에 백색 시멘트 공장을 건설한다. 이 공장이 완공 되면 백색 시멘트 시장에서 상위 5위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의 부사장인 고위리샨커(N Gowrishanker)는 푸자이라에서 새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화 1억4,970만달러를 투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0.6Mta의 백색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으며, 회색 시멘트로 전환하면 1Mta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공장은 2013년에 시운전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고위리샨커는 “새로운 시멘트 공장은 아랍에미리트의 시멘트 생산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로 사우디와 카타르의 GCC의 시공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독일

BDZ · VDZ 합병 통해 독일시멘트공사협회 출범

독일시멘트공사협회(VDZ)와 연방독일시멘트사업협회(BDZ)가 운영을 통합시켜 독일시멘트 공사협회로 합병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 창설된 이 기관은 23개 시멘트회사(매출 21억유로 규모)가 참여하게 되는데 독일 회사의 95%를 대변하게 된다.





영국

시멕스, 새로운 포장 공장 오픈

시멕스가 위릭셔의 럭비 공장 부지에 새로운 시멘트 포장공장을 세우기 위해 UK 350 리라(420만유로)를 투자하였다. 새로운 공장은 다양한 고객과의 협의과정을 거쳤는데 시멕스 고객 중 약 1/5이 새로운 비닐 포장의 시멘트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장은 윈스톱 시스템을 통해 Aroda Arovac 포장 시스템을 통합시켰다. 일단 시멘트가 채워지면 봉지 안의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어 진공 상태가 된 후 밀봉된다.



미국

2011년 1월~9월 시멘트 출하량 소폭 상승

미국 지질 조사 연구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미국과 푸에르토리코에서의 포트랜드 시멘트와 혼합 시멘트의 총 출하량이 7Mt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월 대비 3% 증가한 것이다.

2011년 1~9월까지의 출하량은 53.8Mt으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9월 동안 생산을 주도하였던 주는 텍사스주, 미주리주,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이 총 생산량의 42% 가량을 차지하였다. 소비를 주도하였던 주는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오하이오주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9월 총 출하량 중 34% 가량을 이들 지역에서 소비하였다.



브라질

1~11월 시멘트 판매 전년동기대비 7.5% 증가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브라질의 시멘트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한 58.4Mt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2011년 11월의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6.6% 증가한 5.5Mt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2개월 동안 브라질 내수판매는 63.2Mt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것이다.



페루

1~10월 시멘트 생산 및 출하 증가

페루 시멘트생산업체협회(Asocem)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0월 페루의 시멘트 출하량은 7.51Mt로 전년동기의 7.38Mt에 비해 1.68% 상승하였다. 동기간 시멘트 생산은 7.69Mt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5Mt에 비해 1.95% 증가하였다.

1~11월 시멘트 수출량은 57,698톤으로 전년동기의 11,980톤에 비해 381.62%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11월 시멘트 총 출하량은 7.57Mt에 도달하였는데 이 수치는 총 출하량이 7.396Mt이었던 전년동기에 비해 2.29% 증가한 것이다.





온두라스

2012년 시멘트 소비 전년대비 5% 증가 전망

지난 2010년 온두라스에서의 시멘트 소비가 농촌 부문에서의 개량·개선사업에 힘입어 전년대비 10% 증가하였다.

온두라스 시멘트 산업(Lafarge Incehsa)의 영업 전무인 다리오 멘시아(Dario Mencia)는 “온두라스의 시멘트 수요 중 시공 제품이 1.5Mt를 차지하였다”면서 “커피산업관련 대형 프로젝트 수요가 많지 않아 시멘트 소비 증가분은 콘크리트 시장에서의 호조 때문”이라 분석했다.

한편 온두라스 주요 시멘트 회사들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5% 정도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볼리비아

1~10월 시멘트 생산, 전년동기대비 9.6% 증가

볼리비아에서의 건설 붐으로 인하여 2011년 1~10월 시멘트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하였다. 건축업체들은 시멘트 수요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볼리비아 시멘트 및 콘크리트 협회(IBCH)에 따르면 오류로 지방은 타리하 및 라파스의 뒤를 이어 최고 소비를 기록하였다.



베네수엘라

2011년 시멘트 생산 전년대비 10% 증가

지난 2011년 베네수엘라의 시멘트 생산은 7.79Mt으로 지난해의 7.1Mt보다 약 10% 증가했다고 베네수엘라의 리카도 메넨데스(Ricardo Menendez) 산업부 장관이 밝혔다. 이에 덧붙여 지난해 주정부가 베네수엘라의 국영 시멘트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미화 6억달러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투자는 지난해 4월에 시작된 새로운 공동 주택 프로그램인 ‘Great Housing Mission(GMV)’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멘트 생산을 크게 증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에 따라 베네수엘라에서는 2011년에 14만4,000채의 새로운 주택이 건축되었다.

메넨데스 장관은 2011년에 생산된 최소한 2.1Mt의 시멘트가 2012년 2만채의 주택을 건축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앞으로 시멘트 생산량을 27%까지 증가시켜 2013년에는 11.54Mt를 생산할 계획이다. ▲

